월성스님은?



20여년간 매일 3천배 후학양성 남다른 열정

1935년 충북 보은군 회북면에서 출생한 월성 스님은 53년 성운 노사를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오랜 기간의 염불선 정진을 기초로, 화두선 수행을 멋지게 마무리 한 선사이면서도 일반 신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이다.

신도들에게는 자상하기만 한 할아버지 같은 월성스님은 24세부터 45세까지 매일 3천배 기도 · 염불 및 절하기로 용맹정진해 '득력하면 화두는 일주일만에 타파된다'는 수좌계의 정설을 몸으로 입증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전강 대선사로부터 '이 뭣고' 화두를 받았지만, 본격적인 화두 참구는 염불선으로 득력한 후인 46세부터 본격화됐다. 스님의 '이 뭣고' 화두 참구는 51세 때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큰 결실을 맺었다. 이후 스님은 제자 양성을 위한 도량 건립 불사에 운력을 마다 않고 정진하면서도, 잠시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서울, 남양주, 평택, 장수 등에 창건한 같은 이름의 사찰 '성관사' 네 곳과 정중선원, 대각선원에서 수좌들을 지도하고 있다. 23명의 상좌가 있으며, 이중 10명이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이다.



◇점심 공양을 마친 후 상좌인 성진스님과 함께 포행에 나선 월성스님(왼쪽). 사제지간의 애틋한 정이 엿보인다.

아도 싶을 때가 있었지만, 1만2,000배 정진에 들어갔을 때는 무아지경에서 업장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눈은 아래를 보고 있어도, 등 뒤에서 엄청난 용광로와도 같은 불덩어리가 내 몸을 관통하더군요. 이 불구덩이가 지나갈 때 탐 · 진 · 치 삼독과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찾아드는 걸 체험합니다. 여기서 혜안(慧眼)과 식(識)이 열리는 것이지요."

1만2000배 기도는 5~6년씩 3번에 걸쳐 했다. 100일씩 나눠 300일씩 하는 1만2000배 기도를 통해 망상을 제거하고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1만2,000배 기도는 반야심경 222편, 천수경 121편 독송, 참회의 절 3천배, 신도를 위한 절 3천배로 진행되었다. 이 때 죽을 것처럼 수행하던 모습을 지켜본 신도들도 따라 열심히 수행했다 한다. 지금은 노인이 다 된 성관사의 신심 깊은 우바새 · 우바이들이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깨닫는 참된 '기도'는 그대로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주변환경을 진리공덕으로 장엄하게 한다. 즉 제불보살에게 구하여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원만구족한 불 · 보살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수행방편이다. 스님들이 용맹정진에 들기 전에 기한을 정해 기도에 드는 것도 이런 간절한 서원을 담고 있다. 재가자들도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무슨 일인들 못 이루랴.

월성 스님은 요즘도 깊은 잠에 들지 않는다. 20여분씩 잠깐 귀잠을 잘 뿐이다. 행 · 주 · 좌 · 와 어 · 묵 · 동 · 정은 물론 누워서도 숨소리를 들으며, 화두를 놓지 않는다. 이른바 보림의 과정이다. 옛 스님네들은 견성 이후에도 수행을 늦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중생으로 살아온 습이 한 순간에 떨어져 나가긴 힘들기 때문이리라.

스님은 산사에 주석하면서 수좌들이 더많이 찾아와 배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 배우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에, 애써 세간에 나서길 원치 않는다. 원력을 배워가는 것도 인연법이요, 스쳐가는 것도 인연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에겐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 10명 등 촉망받는 상좌들이 23명이나 있다. 스님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흐뭇해 하신다. 하지만 전생에 닦은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 행여 게으른 마음을 품을까 노심초사하고, 옛날 당신이 하신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정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스님은 최근 몇 년전까지 벌어진 조계종 분규와 스님들의 비리에 대해서 의외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다.

"조선조 500년의 암흑기를 지나 온 불교는 사회적으로 다시 걸음마 단계의 과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법난과 종단 분규가 있었어도 한 생각 일으켜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도인들의 서원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땅에서 받은 각자 인연법에 맞게 중생제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출가하는 스님네들이 사회에서 대학교육까지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화는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이다. 지금 젊은 스님들이 중진급이 되는 10년후면 불교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며, 종교간의 벽도 허물어질 것이다."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어릴 때부터 이웃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요즘도 제자들에게 기도흐에 세계평화와 인류평화, 조국평화 통일, 국가재난 소멸, 국가 안녕과 태평, 육도중생의 성불을 발원할 것을 꼭 당부하고 있다. 평소 '중은 공인(公人)이다'고 강조해 온, 그 이유 때문이다.

남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요 수행이다. 이런 발원이 쌓여야만 보다 큰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성취도 빠르다. 생전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보는 것이 월성 스님의 서원이다.

"큰 공부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자기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한 생을 던져서 해도 될까말까 한데 말입니다. 명예욕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자신 위해 살면 인간 마음 못 벗어납니다. 세계평화와 조국통일, 7,500만명이 삼세업장을 소멸하고 왕생극락하길 발원하는 것은 큰 공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 하나를 위해 산다면 나라는 누가 건집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불자들만이라도 남을 위해 살고 아상을 극복하도록 노력해 줬으면 해요."

이는 철저히 윤회를 꿰뚫은 데서 나오는 말이다. 선정삼매에 들면 '나'라는 것을 찾을 길이 없다. 우주를 깰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법제자가 나오길 바라는 큰스님의 마음은 그래서 더욱 간절하다.

50세에 월성스님은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화두정진에 들었다.

이때 선방에 든지 1주일만에 첫 소식을, 한 달 하루만에 화두가 완전 타파된 것이다. 21세부터 해인사로부터 통도사 봉암사 백양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한 후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지 30년만에 얻은 감격적인 소식이었다.

월성 스님은 오랫동안 용맹정진을 한 이유를 땅에 말뚝을 박는 데 비유했다.

"말뚝을 땅에 박을 때 계속해서 크게 해머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은 살살 두드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크게 내려칠 때 말뚝은 땅 속으로 깊이 박히게 됩니다. 화두참구도 이와 같아서 평소의 정진에 의해서 얻어진 힘의 바탕 위에 용맹정진을 통하여 선정의 힘이 크게 증장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뚝 박듯이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인다면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후 월성스님은 제방의 선지식들을 찾아가 깨달음의 경지를 나누었다.

후학들을 위한 법문을 청하자 스님은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당부하셨다.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남을 위한 미덕을 쌓고 각계각층이 화합하며 살아가되, 양심을 지키며 살면 됩니다.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있습니까. 어떤 때 법문을 할 때 보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중생들이 눈에 보여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죄 짓지 말고, 자성을 밝히는 공부하며 사는것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일입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한평생 공부하고 얻은바 없다면 도둑과 같은 것"

> "젊은 스님들에 기대 10년후 불교미래 발전가능성 많다"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금정스님

중앙승가대학은 한국불교계에서 스님들만 입학할 수 있는, 승려전문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한 정규 대학이다. 오늘의 이 학교가 있기까지 조계종의 절대적인 지원과 의지가 있었고, 석주큰스님을 비롯한 종단과 학교의 수많은 분들의 원력과 헌신이 한데 어우러져 이룩한 성과이다. 서울 돈암동 보현사에서 79년도에 처음 개강한 이래 영화사, 개운사 시대를 거쳐 김포학사로 이전한 지금 20여년의 각고의 시간을 딛고 명실공히 승가교육의 전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앙승가대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석주 큰스님이다. 다음으로는 금정 스님과 문화부 종무실에 재직하던 이용부 전 종무관이다. 금정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기획국장 및 기획실장 소임을 보았다. 재직기간 동안에 대학 설립인가에서부터 지금의 김포학사 이전에 관한 일까지, 어느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다. '승가대학 설립인가 추진위원회'를 89년 2월 발족하였다. 그때까지 비인가 학교였던 중앙승가대학을 교육부로부터 정규대 인가를 받자는 의견이 종단 차원에서 집약되었다. 추진위의 실무책임을 금정스님과 내가 맡게되었다. 금정스님과 나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7층에 있는 교육부 대학행정과를 다짜고짜 찾아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 한참동안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더니 "스님들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었다. "대학행정과장님을 뵈러왔습니다" 했더니 그는 본인이 대학행정과장이라면서 무슨 용무로 왔느냐고 다시 물었다. 우리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중앙승가대학에서 왔는데, 이 대학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으러 왔다고 했다. "대학 인가요!!, 어디에서요??" 하고 의아해하며 또 물었다. 대학이 서울 안암동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인가받으려 한다 고 말하자 그분의 답이 서울에서는 대학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도권의 인구정책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 법으로 개발제한하고 있어서 대학설립인가를 불허한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수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그만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승가대 김포이전 앞장 면학분위기 쇄신 한몫

금정스님의 탁월한 능력과 그 원력의 절실함이 남다른 것을 그때부터 보게되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승가교육의 체계확립과 위상정립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소임도 보지 말고 미련 또한 갖지 말자고 했다. 그날부터 조계종총무원으로 출근하여 정부청사인 교육부와 문화부 종무실에 하루에도 수차례 찾아가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고심했다. 우선 학교법인 설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관련법의 해결을 위하여 국회와 과천청사, 서울시청에도 수없이 다녔다. 관련된 정부 부서와 협의하는데 피를 말렸고, 제출할 서류를 만드는데 거의 날마다 밤을 새웠다. 당시 학교에는 전동타자기 하나가 없었다. 수동타자기로 서류 한질 만들려면 밤을 새기 일쑤였다. 보다못한 내가 전동타자기 한 대를 화주해 왔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깊이 감사드릴 분이 있다. 당시 문화부종무실 종무관이었던 이용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설립인가에서부터 김포학사로 이전승인까지 이분께서 삼분의 일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89년 7월 11일에 취득한 우리는 오히려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법인대학인가를 해준다는 것이다. 대학인가 절차가 몇 단계로 되어있는 것도 그렇지만 정규대학설립 후 3년기간 동안에 법적 요건을 갖추어 학사건립과



운동장 확보를 하고 나면 심사 후,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인가취득 후 다시 학력인정승인을 받아야하며 정규대학승격은 이와는 다른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외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관련법 개정 문제였고, 내적으로는 설립자금확보와 운동장 확보였다. 90년 2월 27일 각종 학교인가 취득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때 금정스님과 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위경련을 자주 했다. 한 달에서 보름사이에 번갈아 가면서 위경련을 했으나 금정스님의 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나는 건강 때문에 2년 가량 학교를 떠났다가 돌아왔다. 그동안에 학교의 면모를 갖추고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금정스님의 의지와 원력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부속시설인 도서관건립, 신문사 개설, 대학학력인정, 복지관 위탁관리, 보육교사 교육원 설치, 각종 학술연구소 개설, 볼전국역연수원 개설 등등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리에서 기획되어 설치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김포학사로의 이전계획이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반대, 수많은 음해를 오직 원력 하나로 극복하고 이전승인을 취득했다. 그는 지금 히말라야의 산기슭에서 고행정진하고 있다. ▩정취암 주지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보물 제1042호인 대광명전 후불탱화를
석채물감을 사용한 전통기법으로 조성하여
천년 후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채색시주를 동참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탱화조성 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선근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동참방법 : 석채물감 10g 기준
동 참 금 : 10만원
접 수 처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전
문의전화 : 055)382-1001, 384-0010

* 접수된 물감은 탱화조성에 직접 사용되며, 다라니가 인쇄된 배접지에는 축원문을 기록하여 탱화 조성 때 사용하게 됩니다.
* 불사 동참자 1,000분에 한하여 자신이 시주한 석채가 담긴 순은 옴자메달을 드립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신허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합장



통도사성보박물관
무료참배 안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상 괘불을 친견할 수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개관 15주년을 기념하여
윤사월에 적멸보궁을 참배하고자 하는 신도단체에 한하여
박물관을 무료 개방코자 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기 간 : 2001년 5월 23일~6월 20일(윤달 한달간)
참배기간 : 오전 8시~오후 6시
대 상 : 전국 사찰 및 신도단체
문의전화 : 055)382-1001, 384-0010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합장

* 최첨단 유물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사찰과 불자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문화재를 기증 · 기탁받습니다.